Symphony No. 1 in D major, Op. 25 "Classical"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 in D major, Op. 25 "Classical" 작곡가: Sergei Prokofiev (1891–1953)
작곡: 1916–17년; 총보는 1917년 9월 10일 완성
초연: 1918년 4월 21일, Petrograd, 작곡가 지휘
헌정: Boris Asafyev

IMSLP: Symphony No.1, Op.25 (Prokofiev, Sergey)

Wikipedia: Symphony No. 1 (Prokofiev)

Sergei Prokofiev의 Symphony No. 1 in D major, Op. 25 "Classical"은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이 글은 편곡이나 발췌가 아닌 교향곡 전곡을 다룬다. 악장은 Allegro, Intermezzo. Larghetto, Gavotte. Non troppo allegro, Finale. Molto vivace의 순서로 이어진다. 1916년에 착수해 이듬해 완성했으며 , 1918 년 Petrograd에서 작곡가가 직접 초연을 지휘했다.

고전 교향곡을 새로 쓰려는 구상

Prokofiev는 Haydn이 20세기에도 살았다면 자신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새 음악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LA Phil의 해설이 인용한 작곡가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느낀 뒤 작품에 "Classica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에는 전통을 중시하는 비평가들을 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따라서 제목은 실제 18세기 악보의 복원이나 특정 Haydn 교향곡의 편곡을 가리키지 않는다. 네 악장 배열과 관악기 2대씩의 편성은 고전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지만, 짧은 악구의 과장과 예상 밖의 화성 ·강약 변화는 Prokofiev가 같은 틀을 자신의 시대에 다시 적용한 방식이다.

작곡 순서도 완성된 악장 순서와 달랐다. 제 3악장 가보트는 다른 악장보다 앞서 쓰였고, 처음 마련했던
피날레는 버린 뒤 새 피날레로 교체했다. 1917년 여름에는 피아노를 곁에 두지 않고 작업했다. 작곡가가 자서전에서 설명한 이유는 건반에 기대어 선율을 만드는 습관을 피하고 관현악의 소리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기 위해서였다 . 이 설명은 작품의 작곡 방법에 관한 그의 회고이며, 모든 화성이나 악기 선택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리는 말은 아니다.

출판 정보와 자료

Prokofiev의 1916–17년 자필 총보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악보 편집자 Jonathan Del Mar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이 자필 총보가 1925년 Édition Russe de Musique 초판 총보의 판각 대본이 되었다. IMSLP에는 이 초판 총보의 서지와 후대 재판본이 구분되어 있고, Morgan Library가 보관하는 1925년

초판본에는 각 악장 시작 부분에 작곡가가 메트로놈 수치를 직접 적은 흔적이 있다. 이는 인쇄된 초판 전체의 표시가 아니라 Morgan이 소장한 한 부의 특징이다.

초기 파트보와 피아노 편곡의 출판 연도는 서지에 물음표가 남아 있어 1925년 총보와 동일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이후 판본도 인쇄된 초판을 단순히 복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Del Mar는 초판 뒤 정정이 가해진 사본과 출판사의 대여용 악보가 전승되었다고 기술한다. 현재 Boosey & Hawkes가 제공하는 연주용 악보는 이렇게 여러 인쇄 ·교정 단계가 이어진 작품 자료의 한 갈래다.

소요 시간

출판사 Boosey & Hawkes와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전곡을 약 15분으로 안내한다. Neeme Järvi 와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의 Chandos 음반은 약 14분 30초이며, 악장별로는 약 4분, 4분, 2분, 4분이다. 1950년 Eugene Ormandy와 The Philadelphia Orchestra의 음반은 네 악장의 트랙을 합치면 약 12분 30초여서 공연에 따라 길이가 꽤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편성

초판 총보 계열의 관현악은 다음과 같다.

목관: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금관: 2 horns, 2 trumpets
타악: timpani
현악: violins I·II, violas, cellos, double basses

Boosey & Hawkes의 축약 표기는 2.2.2.2–2.2.0.0–timp–strings다. 트롬본이나 튜바, 하프, 추가 타악기는 이 원곡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악기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목관과 현악이 주제를 주고받는 모습, 짧은 금관 신호와 팀파니의 개입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네 악장의 진행

I. Allegro

첫 악장은 서주 없이 시작하는 빠른 소나타 형식이다. 상행하는 관현악 신호 뒤에 플루트가 첫 주제를 제시하고 , 이어 바이올린의 도약이 두 번째 주제에 다른 성격을 부여한다. 주제들이 전개와 재현을 거쳐 돌아오는 큰 틀은 익숙하지만 , 강약이 갑자기 바뀌거나 예상했던 조성과 다른 곳에서 재현이 시작되어 고전적인 균형을 조금씩 벗어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음계, 아르페지오 , 장식음처럼 18세기
교향곡에서도 흔한 재료를 Prokofiev가 과장해 쓴다고 설명한다.

II. Intermezzo. Larghetto

둘째 악장은 Intermezzo와 Larghetto가 함께 붙은 느린 악장이다. 높은 음역의 바이올린 선율과 가벼운 반주가 중심을 이루고, 중간 부분에서는 짧고 끊기는 움직임이 앞뒤의 긴 선율과 대조된다. 3박 계열의 춤을

떠올리게 하는 흐름은 전형적인 느린 악장의 선율과 겹친다.

III. Gavotte. Non troppo allegro

가보트는 네 악장 가운데 가장 짧다. 일정한 춤의 걸음을 유지하면서 선율이 넓게 도약하고, 바순의 꾸밈음과
겹치는 장 3화음이 고풍스러운 표면에 뜻밖의 악센트를 만든다. 작곡가가 먼저 만든 이 악장은 나중에 발레 Romeo and Juliet로 옮겨 갔다. 전막 발레에서는 I막 무도회의 손님들이 떠나는 장면에 Gavotte: Departure of the Guests라는 이름으로 놓인다. 두 작품에서의 쓰임은 각각 교향곡의 세 번째 악장과 무대 행동에 붙은 춤으로 구분된다.

IV. Finale. Molto vivace

피날레는 빠른 음형과 선율의 교대가 이어지는 종결 악장이다. Prokofiev는 앞서 만든 피날레를 버리고 새 악장을 쓰면서 단조 3화음을 피하려 했다고 자서전에서 회고했다. 이 작곡상의 제한은 D장조의 밝은 종결과 연결된다. 반복해서 돌아오는 주제 때문에 LA Phil은 이 악장을 론도로 설명하고, Boosey & Hawkes의 작품 해설은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한다. 두 해설은 주제의 귀환을 서로 다른 형식 용어로 파악한 사례다.

초연 이후의 무대와 녹음

1918년 4월 20일 Petrograd의 옛 궁정 예배당에서 열린 드레스 리허설은 초연 준비였다. 정식 공연은 이튿날 낮에 작곡가의 지휘로 열렸다. Boosey & Hawkes는 악단을 옛 궁정 관현악단으로 ,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State Orchestra로 표기한다. 혁명 전후의 명칭이 다르지만 두 기록은 같은 4월 21일 초연을 가리킨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에 전해진 Prokofiev의 회고는 그가 리허설에서 악단의 생기와 정확성은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섬세함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초연은 성공적이었다고 적는다. 이 발언은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첫 공연의 상황을 알려 준다.

같은 해 12월 New York에서는 Prokofiev가 Russia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하며 미국에 작품을 소개했다. Serge Koussevitzky가 Bosto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해당 악단의 첫 공연은 1927 년이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가 공개한 Koussevitzky의 역사 녹음은 그가 이 교향곡을 지속해서 다뤘다는 공연 기록과 이어진다. 한편 1950년 Ormandy와 The Philadelphia Orchestra의 Columbia 음반은 네 악장을 따로 수록한 초기 발매 자료다. 후대 Neeme Järvi와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의 Chandos 전집에 관해 《 Los Angeles Times》의 1986년 비평은 악기 사이의 균형과 고전풍 선율에 스며든 화성 ·리듬의 변화가 함께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서로 다른 시기의 기록은 이 작품이 초연 직후부터 작곡가의 해외 공연을 거쳐 관현악 레퍼토리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Gerard McBurney, Classical Symphony in D — 초연, 편성, 전곡 시간과
형식 설명.

Boston Symphony Orchestra, Harlow Robinson, Symphony No. 1, Classical — 작곡가 일기와
초연 회고의 전언, 작곡 ·미국 공연 연대.

LA Phil, Herbert Glass, Symphony No. 1, “Classical” — 자서전 인용과 피날레의 다른 형식 해석

.

Jonathan Del Mar, “Prokofiev: Classical Symphony,” Orchestral Masterpieces under the Microscope — 자필 총보, 초판과 교정 전승.
Morgan Library & Museum, Symphonie classique 초판본 서지 — 1925년 초판 및 작곡가의
개별 소장본 메트로놈 표시.
LA Phil, Romeo and Juliet 전막 작품 목록 — 가보트가 발레에서 맡는 장면.
Library of Congress, Curtis Institute 2015 공연 프로그램 — 악장별 주제의 제시와 대비를
설명한 해설.
Boston Symphony Orchestra, Koussevitzky @150 Recordings — Koussevitzky의 작품 녹음. Chandos, CHAN 8931 및 《 Los Angeles Times》의 1986년 Neeme Järvi 전집 비평 — 전집 서지와 독립적인 해석 평가.